6. 삼성전자, 뉴욕서 독창적 식문화 전파…셰프마케팅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적인 미식 행사에 참가해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서 이색 마케팅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9∼13일(현지시간) 열리는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TheWorld's 50 Best Restaurants)의 사전행사로 한국의 독창적 식문화를 알리는 '코리아 NYC 디너'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2002년 시작한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은 세계적 미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행사로, '셰프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으로도 불린다.  
  
코리아 NYC 디너는 올해 처음으로 열렸는데 여기에 강민구·유현수·임정식·장진모·최현석 등 한국의 유명 셰프 5명이 초대돼 '발효'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 갈라 디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11일에는 뉴욕 트라이베카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정식'(JUNGSIK)에서 100여명의 영향력 있는 미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효 주제의 갈라 디너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삼성 '클럽 드 셰프 코리아' 멤버인 강민구·임정식 셰프가 개성 있는 코스의 갈라 메뉴를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

삼성은 또 이 행사에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가전인 '패밀리 허브' 체험공간을 마련했는데 식품 관리 기능, 레시피 앱 등이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미셸 트로와그로와 다니엘 블뤼 등 세계적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레시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클럽 드 셰프 앱'이 큰 관심을 끌었다.  
  
또 요리 중 화면 조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레시피를 읽어주거나 효과적 스크린 구성으로 상세 요리 과정을 전달하도록 한 기능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형 패밀리 허브에는 강민구·이충후 셰프의 레시피 콘텐츠가 탑재됐으며, 앞으로도 클럽 드 셰프 코리아 멤버들의 레시피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